

보도시점 (전매체) 11. 15.(수) 12:30

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운 민관협력 체계(패러다임)로 지역 창업 생태계 견인

- 중소기업부·지방시대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15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동반자(파트너) 대기업(혁신센터 당연직이사)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반자(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동반관계(파트너십)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전 방안으로는 개방형 혁신 체계 개편, 혁신센터 간 한 조(원팀) 구축을 통한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 보육 체계 도입,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제시된 내용은 충분한 대내·외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영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은 포항 지역에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 현장(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및 실험동(RIST), 제조인큐베이션센터 예정지 등)을 시찰하고,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공급망(밸류 체인) 조성 내용, 지역 기업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청취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중심지(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사회적 책임경영(ESG) 일환으로서 대기업이 지역 창업 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전략적으로 상호 수요를 충족하는 윈-윈(win-win) 형태의 새로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는 새로운 체계(패러다임)을 통해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박은주 (044-204-7660)
		담당자	사무관	민병철 (044-204-7675)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은구 (044-251-3126)
		담당자	사무관	손정아 (044-251-3127)



참고 1**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1.15.(수), 12:30~15:20,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중기비서관, 포항 시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파트너 대기업 임원, 포스텍 총장 등 총 40여명

□ 주요내용 : 창경센터 발전방안 모색, 우수사례 공유, 현장시찰 등

□ 행사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2:30 ~ 13:50	(80')	■ 정책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지역혁신사례 발표 ○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제언 ○ 자유토론 	
14:00 ~ 15:20	(80')	■ 현장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인지업그라운드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제조인큐베이션센터 등 	

□ 검토배경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4.9) 이후 지난 9년여간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혁신센터 발전방안 모색 시점 도래
- 아울러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등과 연계하여, 향후 혁신센터가 지역창업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주요 정책제언(안)**① 파트너 대기업 협업 활성화**

- 창구는 단일(1:1)하게 하되, 프로젝트 베이스로 확장(1:多) 운영*하는 파트너대기업 협업 재구조화
 - * 예) 대기업은 인프라를 공유하고, 여러 센터에서 우수기업을 발굴·연계
- 파트너 대기업의 협업 이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방안 모색

② 원팀 구축

- 센터간·지역 창업 인프라간 협력을 근간으로 '단계별 스타트업 공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STEP 1) 지역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 → (STEP 2)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 연계 → (STEP 3) 대기업과 공동 개방형혁신·공동IR 등 운영, 글로벌 창업허브로 연계

③ 센터 자생력 확보

- 공공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수익·펀드 운영 수수료 확보
 - * 스타트업 초기 투자, 펀드 조성, 전국단위 공동IR, 스타트업 Pool 공유 등
- 스타트업 허브역할로 운영비 및 사업비 확보
 - * 지역펀드 LP·GP 활동, 중앙·지방정부 사업 기획 제안, 창업인프라 시설 운영 등

④ 센터 운영 효율화

- 지역창업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및 조직구조 개편*, 민간주도형 행정체제로 전환** 추진
 - * (사업구조)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관리, 기획 수탁중심 사업운영
 - ** (민간주도형)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 관련 내규 일원화 등 정비

참고 3**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등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파트너 대기업 현황 >

센터명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기업명	네이버	KT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SK	롯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CJ	SK	현대중공업	한진·KT	GS	효성	카카오	한화	LG

* 빗가람(나주), 포스코(포항) 등 2개 민간 자율형 센터 별도 운영

- (성격)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
- (기능)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기업 보육 및 투자, 지역의 다양한 혁신 활동 지원, 창업기업 일자리 매칭 등

□ 주요 성과

- (창업기업 육성) 자체 창업보육 및 투자, 정부·지자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창업기업 발굴·육성

* 창업기업육성(개) : ('18) 1,796 → ('19) 2,348 → ('20) 3,432 → ('21) 3,857 → ('22) 4,358

- (협업체계 구축) 전담 대기업을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협업기업·기관 수 : ('17) 17개 파트너 대기업 중심 → ('22) 918개 기업·기관으로 확대

- (투자 활성화)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엔젤투자자 교육 등 비영리·공공 액셀러레이터(AC) 역할을 통해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쏠 센터 AC 등록, 8개 센터(경기·충북·광주·울산·경남·충남·인천·제주)는 TIPS 운영사 지정